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우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규칙>: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범공양 페이지

'공' 한 중심에 모든 걸 맡겨 놓아라

15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를 생각하지 말고 아하! 안되는 것도 너가 하는 거구나. 양면을 다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구나. 아! 감사하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런데 되긴 됐는데 안되는 것도 있더라 이력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안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거니까 말이예요. 안되는 게 없다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스님, 참 감사합니다." 그랬죠. 내 모습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당신 그림자가 내 그림자를 보고서 웃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 고깃덩어리의 모습을 보고 미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즉 모습을 보고 따르지 말아라 이 소리죠. 네 모습을 네 모습이라고 하지 말아라. 육신은 자생중생들의 집합소니라. 집이 아니라. 그리고 심부름꾼이며 관리인이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면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니라. 그러니 진정한 마음으로 둘 아니게 믿으세요. 알았죠?

질문3: 저는 대구지인 청년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큰스님을 직접 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내 한마음 주인공은 무조건적인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하는 자리인지, 큰스님의 크나큰 신 감로수 발원합니다.

스님: 예를 들어서 큰 불기둥이 하나 하늘을 꿰고 땅을 덮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고 돌아가는 수레가 그 불기둥을 가운데다 끼웠기 때문에 수레가 돌아가는 거예요. 수레는 실 사이 없이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나 주인공을 내가 일부터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집이 지금 말하게 된 것도,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도 이미 주인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벌써 그렇게 살아서 움직여가는 거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주인공이라 하는 뜻은 자기의 주인이면서,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공하다는 뜻이거든요. 실 새 없이 활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인간 자체가 수레라고 해도 돼. 수레가 돌려면 중심이 없이 어떻게 수레가 돌아가나? 그 힘을 배출해 주지 않는데, 하다못해 자동차도 중심을 끼워주지 않잖아? 제대로 돌아가지. 중심을 끼워주지 않다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나. 그러듯이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된다. 자기 뿌리에 꿰어서 바로 이 씨이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와 뿌리끼리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통신이 되고 또 말과 말이 통신이 되고, 아래서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또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상대성 원리로서의 인간이다 이렇게 움직여가고 살고 있는 얘기가.

자기가 주인공이 없다면 지금 몸도 정신계도 없어. 무효야. 내가 없다면 다 무효야. 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나와서는 절대 그냥 갈 수는 없다. 나를 움직여가게 하는 힘이 어떤 놈인지 알아야겠다.' 좀 이러한 말이에요. 모든 게 일체 관물만생이 다 중심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계도 그래요. 모두가!

질문4: 저는 부산지인 청년회에 다니고 있는 김형원입니다. 저는 아직 초발심인데도 이 자리에서 스님께 질문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인연에 대해서인데요, 요즘 보면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또 부모도

자식을 막 팔아먹고 하는 그런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어떠한 인연으로 일어나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얼마 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죽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보통 어릴 적부터 자라는 가정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모인 청년 법우님들은 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법우들이 이 마음도리를 잘 닦아서 선연으로 만난 인연과 배필을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화목하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스님

또 그렇게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 오줌통에다가 집게로 따어서는 두경 덮어놓고 이렇게 죽였어. 그런데 오십살이 다 된 부부가 형제를 낳아 기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가다가 보시고는 그 부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저 애들이 서당에 갔다 울때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는 깨벌레고 하나는 거미다. 그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나온 거니까 절대로 이거는 그냥 있어서는 안되니까. 철사로 이렇게 망을 해서 둥그렇게 병아리 집 모양으로 해서 놓고는, 거기다가 가마뱀기를 깔아서 조금만 내놓고 그 안에서 간 겹불을 질러서 놓고, 그러고서 애들이 울 때가 되면 당신 스스로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두경을 덮고 아무리 불려도 대

안되는 것도 되는 것 되는 것도 되는 것이니 양면 다 알아야 해요

의 자비하신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스님: 이거는 집이 아무리 크고 싶어도 내가 대신 내가 통 쥐줄 수도 없고 집이 병 앓는 걸 대신 앓아 줄 수도 없고 또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대신 잡자 줄 수도 없어요. 안 그래? 그러기 때문에 이 도리의 섭리를 자유자재하려면 자기만이 자기를

답을 하지 말라고 일러줬습니다.

아! 그래서 그대로 하고 기다리니까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하고 들어오더니만 그냥 막 악을 쓰고 울고 불고 엄마 아빠 찾자 야단이 났어요. 그러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 년놈들 어디 갔느냐' 이거야. 이 년놈들, 요 때에 원수 값을 텐데 어디로 갔느냐고 그냥 펄



그림 · 최주현

중점과 시발점이 둘 아닌 한자리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의세계에 모든 통신을 하고 또 유의세계는 말로 하고 몸으로 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무의세계에 중용은 한 찰나에 오고 가면서 일을 해.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왜 그렇게 됐나? 모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차원이 이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 차원대로. 그래서 서로 우연이라는 건 없어. 인태를 해서 예를 날 때 그 어른들 차원에 따라서 인태가 돼. 종자가 있지 왜? 대추 종자라든가 무 종자라든가 종자가 있듯이,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고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리듯이 그것은 피지 못해.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을 진 대로 그 똑같이 지은 그 차원대로 가서 인연이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소리가 나게 돼. 강릉끼리 모였으면 강릉끼리 소리가 나... 그냥 조금만 뒤라 해도 소리가 나지. 그와 동시에 인과를 지었으면 또 업을 지었으면 서로가 그 업 집 사람들끼리 원수들끼리 만나고 그런 거지.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게 있지.

옛날에는 깨벌레하고 거미들이 너무 많아서 오줌을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고 오줌에다 넣어서 죽였다고. 그것이 하루만 강릉으로 잡아도 그 이틀날 보면

풀 뛰고 울고 그러더니 차차로 시간이 지나니까 깨벌레와 거미로 바뀌는 거야. 그 부모는 너무 징그러워서 나오질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와 보니까 그 양쪽에 두군데다가 해봤는데 하나는 깨벌레고 하나는 거미인데 그냥 전부 날부러져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 그 스님께서 살려 준 거지. 그 깨벌레하고 거미하곤 다 그 스님께서 다시 그 못을 벗겨 천도명 시키고 두 부부는 거기에서 모두 달려 들어서 물어먹을 텐데 풀어 먹이지 않도록 살려 줬죠. 그래서 그대로 살아서 부처님 앞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생을 보냈어요.

그러니 모든 인과응보란 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 이 못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의식들이 다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인과도 있고 유전도 있고 영계성도 있고 모두 거기에 묻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것이 다 사라진다. 이 소리지.

그러니 다리가 무너진 것도 그래. 자기의 정신계를 알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양면에서 다 그래요. 일거리를 어느 회사로 주게 되면 이것을 아주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돈을 쥐어 되거든. 그런데 씨게만 자

꾸 하고 돈을 덜 주니까 일하는 데선 충분치가 못하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선 또 자기가 다 못하니까는 하청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하청을 주니까 하청 받는 사람이야 뭐 그냥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한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서로 붙어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지. 지금 이렇게 개화되고 이렇게 밝은 세상에 다리 난간마다 위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드르르륵 울리게끔 장치를 해놓고선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주 걱정없는 거거든. 그런데 왜 그것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야. 응? 어디가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모르게끔 되니 이걸 붙여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 또 그 시간에 뭘 또 그렇게 가는 수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것도 우연하는 아니야. 모두가. 그냥 가다가 자빠져 코가 깨져도 그건 우연이라는 게 없어. 철칙이야!

자기가 알지 못하게 죄를 지으면 알지 못하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짓는다면 알고 받게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절대라고 생각해. 모든 거 잘못되고 잘 되는 건 그 공한 중심에다가 다 맡겨봐라. 네가 죄짓는 게 아니라. 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공생이 아니야? 더불어 같이 먹잖아? 그리고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화하고 그냥 같이 돌아가는데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데 뭐가 내가 따로 있어. 내가 따로 질 죄가 있나? 생각해 봐. 그렇다고 해서 마구해서는 안되지. 내가 질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막해도 죄가 안 된다더라 하고 이력해선 안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마음으로써 자기를 다스려서 그 불기둥 즉 말하자면 중심주에다가 모든 것을 보라 이거야. 거기가 맡겨봐라 이거야. 돌아가는 수레가 바로 우리 돌아가는 몸이 다 거기에 꿰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두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을 잘 쓰기도 해야겠지만 어떻게 잘 대처를 해서 쓰느냐도 그건 지혜에 달려 있고 문리가 터지는데 달려 있으니까. 문리가 터지지 못하면 아이구, 이거는 금방 안된다고 이러면서 인내가 없으면 그냥 파헤쳐버리고 말고 이렇게 한다면 비유하자면 그런 부산을 가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다가 내가 아휴! 가다가 진력한다 이젠 그만 뒤 버리자, 이런다면

질문5: 저는 마산지인에서 온 청년회 공형숙입니다. 직장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 바로 위의 직속상관이 그 위의 상관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를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사에 대해서 막 헐뜯고 또 그 상사와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항상 앞에서 보게 되면 저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워지고 그러합니다. 사실은 다 한 마음이고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그 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일단 그 사람이 먼저 미워지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감싸안을 수 없어서 좀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스님: 잘 말했어. 뿌리는 한 뿌리지만 모습은 다 각각이야. 나무 이름이 다 각각이듯 안 그래? 근본이야 둘이 아니지만 그 모습은 제각기 천차만별이다 이거야.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 그 상사들끼리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 직원한테도 이익이 별로 없지. 그것도 상사다 직원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었어. 그지? 마음과 마음이 가설이 돼었으니 내 버릇을 누를 때에 '저기도 볼 좀 들어오게 해. 응?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너 밖에 없어.' 하고 버릇을 누를 때에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있거든. 알겠어?

이제는 보이는 대로 들어 오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버릇 누르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불이 들어오게 돼있어. '저렇게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좀더 다복하게 지내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가 달려. '주인공 당신밖에 없어!' 하고, 그리고 차차 지켜봐, 화목해지지. 그러니 모든 게 진짜로 풀려서지고 안된다면 아니되는 게 없는데 진짜로 믿지를 않아. 안되면 아이구! 이것도 또 그냥 아무 것도 아니야. 주인공이 뭐 말라빠진 주인공이야. 이러거든. (대중 웃음)

그런데 자기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 아닌 놈이 아니라 말이야. 자기가 주인이자 공했다 이거거든. 몸과 정신과 둘이 아니게끔 돼있는 자체가 한덩어리가 지금 자기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게 돼버려. 허허.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냥 죽으나 사나 자기가 자기 뿌리를 믿어. 같이 더불어 같이 사는 자기 말이야.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거야. 주인공이 죽는 법은 없어. 그러니 모두 보이지 않는 데 연결이 되고 가설이 되고 그랬으니까. 또 가설이 된 까닭에 내가 한생각을 낸다면 전과가 통해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있다 이거야.

살아나가다 보면 가정에서나 친구들하고도 그렇게 사회로 나가도 그렇고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 그런 건을 누가 해주나? 누가 해주는 사람 없어. 헛아가는 일도 없고 갖다주는 사람도 없어. 오직 자기만이 그걸 대처하고 나가야 돼. 길에 가다가도 누가 싸우면 저거 싸우지 않게끔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지나가다가도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왜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점에서 어떠한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벌써 보는 순간 가설이 돼있는 거야.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그러니 한 사람이 깨달아서 중생부 제도하는 것도 내 몸 안에 있는 중생부터 조복을 받아야 그 조복받은 중생들이 전부 화해서 천백억 화신으로 응신이 돼 버려. 그래서 모두 구제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모르게도 하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구제하고 보이는 중생도 구제하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말이에요. 알았어? 응. 알았습니까? 선생님!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나를 발견하고 체현하고 이 세상을 관리하게 살고 앞으로 자기가 뿌려놓은 거를 자기가 다 맘대로 굴릴 수 있게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깨닫는다. 뭐 성불한다 이런 이름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자유인이 되자 이거예요. 무슨 성불을 하고 부처가 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름해서 부처야. (대중 웃음)

* 위 법문은 1994년 10월 23일 청년연합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짜로 안목을 닦고 고요한 현실에 함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디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55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이웃